

## 금요일의 사나이 김달진 박물관 관장 되다

자료를 의미 있게 정리하다 보면 정보가 된다. 그리고 정보가 쌓이면 역사가 된다.  
한국 미술 자료의 살아 있는 역사, 김달진 관장. 그가 30여년간 수집한 미술 자료를 모아  
박물관을 열었다. '금요일의 사나이'에서 '걸어다니는 미술사전'을 거쳐  
박물관 관장이 되기까지, 과연 역사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에디터 이정선 사진 신빛





‘수집의 추억’은 누구에게나 있다. 얼마 전 텔레비전에 나온 한 가수는 자신이 운동화를 수집하는 취미가 있어 집에 400켤레가 넘는 운동화가 있다고 했으며, 어떤 연기자는 아톰만 꾸준히 모아 아내의 핀잔을 듣기 일쑤라고 했다. 우표, 화폐 같은 범세계적인 수집부터 자동차, 보석 같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수집, 그리고 화장실 좌변기처럼 유별난 수집까지, 그 종류가 무엇이든 간에 한 해, 두 해 착실히 모아 온 물건들을 한자리에 쭉 늘어놓았을 때의 포만감은 경험해본 사람만 이 안다.

김달진 관장에게는 그 대상이 미술 자료였다. 중학교 때부터 모으기 시작했으니 이제 30년을 훌쩍 넘겼다. 단순한 취미를 넘어 직업이 되었고 이제 이 분야에서는 유일무이한 존재가 되었다. 미술계에 종사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미술에 좀 관심 있다 하는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그냥 지나치기 어렵다. 전시회 하나를 찾아보려고 해도 몇 번의 연관 검색어를 거치다 보면 자연스레 그의 이름과 마주하게 된다. 지금이 있기까지 그의 미술 자료 인생을 되짚어보았다.

## 취미에서 직업으로

먼저 국립현대미술관 시절부터 묻지 않을 수 없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술잡지사 기자 경력이 전부였던 그가 어떻게 국내 유일의 국립미술관 자료실에 취직할 수 있었을까?

“중고등학교 때부터 미술 자료 수집을 하며 이런 종류의 일을 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막연하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저런 미술 자료를 어떻게 모았는지 나에 대한 글을 써서 당시의 대표적인 화랑이나 미술 비평가들에게 보냈지요. 그때 이정성 전 국립현대미술관 관장님과 인연이 생겼어요.” 당시 홍익대학교 박물관 관장이었던 이정성 교수는 저명한 미술 비평가이자 미술계의 큰 어른이었다. 한번 보자고 해서 그동안 스크랩한 걸 싸 들고 갔는데, 너무 긴장한 나머지 만 나자마자 넘죽 큰절부터 했다.

그렇게 인연을 간직한 채 그는 〈전시계〉라는 미술잡지사에 기자로 취직한다. 하지만 3년 뒤, 언론 통폐합의 바람이 불면서 그가 다니던 잡지사 역시 문을 닫게 된다. 결국 청주에 내려가 잠시 누님 일을 도우며 지내던 중 신문에서 이정성 교수가 국립현대미술관 관장으로 취임했다는 기사를 보게 된다. 그 전까지만 해도 국립현대미술관 관장은 행정직 공무원이 하던 시절이었다. 그러다 문화예술 방면의 기관장을 그 분야의 전문가가 해야 한다는 대통령령이 내려지면서 이정성 교수가 취임한 것이다. 기회였다. 바로 편지를 보냈고, 그의 열성을 기억하고 있던 이정성 관장은 그에게 임시직으로 국립현대미술관

에서 일하게끔 해준다. 그것을 시작으로 1981년부터 장장 15년이다. ‘금요일의 사나이’라는 별명도 이때 얻었다. 매주 금요일이면 어김없이 한쪽 어깨에 가방을 메고 하루 종일 전시장을 돌며 자료를 수집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관관이라는 건 사회생활에서 무시할 없는 부분이었다. 또 일을 하다 보니 배움에 대한 욕구도 커졌다.

“제가 대학을 서른네 살에 들어갔어요. 만학도였죠.” 자격증을 따기 위해 성균관대 한국사서교육원을 수료했다. 하지만 아마저 부족하게 느껴져 서른네 살이 되어 서울산업대에 입학한다. 또 1999년에는 중앙대 예술대학원 문화예술학과에서 ‘국내 미술 자료 실태와 관리 개선 방안 연구’라는 논문으로 석사 학위를 취득한다.

취미가 일이 된다는 건 지금이야 종종 있는 일이지만 그 당시만 해도 드문 일이었을 것이다.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저를 소개하는 편지를 보낸 분 중 당시 〈뿌리 깊은 나무〉의 김형윤 편집장님께서 답장을 주셨어요. 미술 자료 수집하는 건 그냥 취미로 하라는 거예요. 취미가 일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도 전 답장을 준 것만도 고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름도 안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 얘기를 들으니 갑자기 금금증이 일었다. 그러면 다른 취미는



김달진은 1955년 충북 옥천에서 태어났다. 중고등학교 때부터 지난 30여 년간 미술 자료를 모아 왔으며 이와 관련된 200여 편의 글을 발표해 이 시대 미술 자료의 의미를 사람들에게 되새겼다. 미술잡지 기자, 국립현대미술관 자료실, 가나아트센터 자료실장 등을 거쳐 2001년 김달진미술연구소를, 2008년에는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을 열었다. 월간지 〈아트가이드〉와 격월간지 〈아트맵〉을 발간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달진닷컴([www.daljin.com](http://www.daljin.com))을 운영하고 있다. 저서로는 〈바로 보는 한국의 현대미술〉(도시출판 발간)이 있다.

“자료가 곧 힘이지요. 자료가 없으면 이렇게 주장할 수 없어요. 자료가 뒷받침이 되니 제 주장이 객관적으로 인정을 받는 거죠. 또 무슨 일을 하기 전에는 꼭 자료 조사 먼저 하니 자료는 제 일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없는 건가?

“다른 취미는 없어요. 하루에도 이렇게 많이 자료가 쌓이는데 이거 정리하고, 신문이나 인터넷에 자료 올라온 거 확인하고, 홈페이지도 관리해야 하고... 일주일에도 하루, 이틀 정도만 정상 퇴근이고 매일 밤 10시, 11시니까 가족한테 늘 미안하죠.”

그는 자신의 인생을 반쪽짜리라고 했다. 자료 수집이라는 게 쉬워 보이지만 해본 사람만이 안다. 얼마나 많은 시간과 정성이 들어가는 작업인지. 그는 왜 이렇게 자료 모으는 데 열중한 걸까?

## 자료는 힘이다

박물관 관장실 한쪽 벽에는 흰색으로 이름표가 붙여진 A3 크기의 파일이 쭉 꽂혀 있다. 이름표의 주인공은 김환기, 도상봉, 박수근, 유영국, 이중섭, 장욱진 등. 바로 우리나라의 미술가 280여 명에 대한 파일이다. 한 파일에는 그 미술가에 대한 도록이나 팸플릿뿐만 아니라 신문 기사나 작은 도판까지 모두 모아두었다. 화장품 회사의 사보부터 주부잡지인 〈여원〉에 한 페이지 나와 있는 도판까지도 청계천을 뒤져가며 수집했다. 그와 얘기를 하다 보면 이름과 연도, 작품명 등이 너무 정확하게 나와서 놀랄 정도다. 과연 ‘걸어다니는 미술사전’이

라는 별명이 괜히 생긴 건 아닌 듯하다.

“이런 자료는 국립미술관에도 삼성미술관 리움에도 없어요.”

그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미술계와 미술 자료에 대한 날카로운 비평과 제안 글을 쏟아내기 시작한다. 그 시기는 1985년 〈선미술지〉 겨울호에 쓴 ‘관람객은 속고 있다-미술 자료 기록의 허구’라는 제목의 글이었다. 잘못된 정보나 과장된 내용의 팸플릿이 관람객을 오도하고 있다는 내용의 이 글은 그 후 많은 일간지에 인용 보도되면서 김달진이라는 이름 석 자를 세상에 알린다.

그 후에도 미술 공모전의 잘못된 관행이나 미술상과 미술단체의 실태, 지난 10년간의 미술계 10대 사건을 기사로 내는 등 미술계의 뉴스메이커 역할을 톡톡히 해낸다. 지금까지 발표한 글만 해도 무려 200여 편이 넘는다.

“한번은 문예진흥원에서 낸 1988년과 1989년 문예연감의 내용이 거의 똑같아서 이에 대해 글을 썼는데 그게 신문에 보도돼서 당시 제가 있던 국립미술관으로 전화가 오기도 했습니다. 같은 일에 종사하는 사람끼리 이럴 수 있는 거죠.”

속칭 너무 ‘까발리는 거’ 아니냐는 불평의 소리도 있지만 이 분야의 전문인으로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것을 그는 소명으로 여긴



1 오지호, 김주경 2인 화집(1938, 27.2 × 33cm): 우리나라 최초의 원색 도판 화집. 한국인상주의 화풍을 정립시킨 두 화가의 회화 세계를 담고 있다. 2 History of Korean Art(1929): 일제강점기 경성제국대학 등지에서 조선미술사를 강의했던 독일인 Andreas Eckardt가 지은 책. 건축, 조각과 탭, 불교 조각, 회화, 도자, 기타 공예 등을 종류별로 담고 있다. 3 근역서화집(1928, 15 × 21.5cm): 오세창 저. 우리나라 서화가사전(書畫家辭典)으로 1117명의 화가 명단을 수록하고 있다. 4 신미술 1호(1928.9, 17.6 × 25.2cm): 우리나라 최초의 미술 월간지. 국내 판화의 개척자인 이항성이(류성)이 창간했다. 5 조선미술사연구(1946, 12.8 × 18.3cm): 유채 화가이자 미술비평가인 윤희순이 신문, 잡지 등에 발표했던 한국미술 관련 글들을 엮은 책.

다. 그리고 그런 주장의 배경에는 자료가 있다.

“자료가 곧 힘이지요. 자료가 없으면 이렇게 주장할 수 없어요. 또 무슨 일을 하기 전에는 꼭 자료 조사 먼저 하니 자료는 제 작업의 시작이기도 하고요.”

유명세를 타다 보니 가끔은 엉뚱한 일이 생기기도 한다. “이메일이 왔는데, 자기가 미국에서 박사 논문을 쓰고 있다면서 한국과 미국이 해방 이후에 미술 교류전이 있었던 현황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컴퓨터로 입력하면 바로 타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제일 아쉽습니다. 자료는 일차적으로 가공을 해야 하는 건데 아무도 그건 안 하려 하고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죠.”

## 소통과 공유를 위하여

자료를 모으는 일은 궁극적으로 사람들과의 소통과 공유를 목적으로 한다. 무료로 배포하는 미술정보지 월간 <아트가이드>, 격월간 <아트맵> 그리고 인터넷 달진닷컴(www.daljin.com), 최근에 개관한 미술자료박물관까지, 이는 그가 사람들과 미술 자료로서 소통하고 또 공유하기 위한 방법들이다.

2002년 12쪽의 접지형 잡지로 시작한 <아트가이드>는 현재 160여 쪽이 넘는 월간지로 어엿이 자리매김했다. 국내에서 열리는 그달의 거의 모든 전시를 한 권의 잡지에서 볼 수 있고, 해외 특파원을 통해 외국의 소식도 전한다. 전시 소개 사이사이에 저명한 미술 평론가의 글도 실는다. 무가치라는 게 무색할 정도다. 하지만 처음에는 잡

지를 만든다는 게 쉽지 않았다. 일단 제작비가 문제였다.

“아는 화랑에서 그달에 전시를 한다고 보도자료 보내주면, 전화를 해서 광고를 좀 내지 않겠느냐고, 한마디로 영업을 했지요. 정말 그때 생각만 하면, 어휴.”

괜한 자력지심 같은 것도 들었다고 한다. 지금은 불륨도 두꺼워지고 매달 3만 부씩 배포하니 광고 효과도 입증되어 굳이 영업을 하지 않더라도 알아서들 찾아온다. 지난 10월호만 해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여는 ‘가을-秋’ 전시회를 단독으로 광고했다. 1년에 한두 번밖에 기획 전시를 하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한 군데에만 광고를 한 것은 그만큼 <아트가이드>가 다른 어떤 유가 잡지보다 광고 효과가 있다고 믿기 때문일 것이다. 올해 창간한 <아트맵>은 한글판과 더불어 영문판까지 제작했다. 외국인들에게 꼭 필요한 자료인데 어찌 보면 좀 늦은 감이 있다. 하지만 이 역시 김달진 관장의 노력이 없었다면 언제 세상에 나왔을지 모를 일이다. 달진닷컴은 너무 유명한 미술 정보 사이트다. <아트가이드>에 실린 내용뿐 아니라 매일 배달되는 15종의 신문에서 미술계와 관련한 헤드라인 뉴스만 뽑아서 정리해놓고, 평론가의 이력이나 미술관의 각종 데이터를 구축해놓았다.

미술자료박물관은 김달진 관장이 지금까지 해온 일들의 결정관이자 최종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립현대미술관 시절부터 미술관의 자료센터 건립을 주장해 시달려서까지 쓸 정도로 그는 자료센터에 대해 끊임없이 그 필요성을 역설해왔다. 결국 우여곡절 끝에 통의동 건물 지하에 약 200m(60여 평) 규모의 박물관을 열어 3월에는 정식으로 박물관 등록을 했고, 10월 23일부터는 개관 전시를 진행 중이다. 개관 전시 당일에는 미술계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찾아왔지만 기쁨보다 아쉬움이 앞섰다. 박물관이라고 하기에는 규모나 형태가 자리 잡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하이다 보니 습기도 차고 여름에는 비가 샌다. 또 공간이 협소해 아직 고향 형님 댁에 4.5톤 분량의 자료가 고스란히 남아 있다.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국가나 어느 단체에서 공간만 제공해준다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자료를 다 기증할 생각입니다. 죽을 때 갖고 갈 거 아니잖아요.”

그는 이 모든 일은 미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한 우물을 파도 제대로 판 것이다. 그러는 사이 어느덧 그 자신도 미술계의 역사가 되었다. 그가 정리해놓은 무수한 파일 중에는 ‘김달진’과 일도 있다. 그동안 그가 기고한 글이나 언론 매체에 소개된 기사 등을 모아둔 것이다. 이 기사도 아마 그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되지 않을까? ●